

박은식의 사회발전에 대한 견해와 그 제한성

지 일 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평가와 처리를 잘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제3권 증보판 293페이지)

박은식(호는 겸곡, 1860—1926)은 19세기말—20세기초 사회의 근대화와 국권회복을 위하여 활동한 계몽사상가이다.

그는 당시 격화된 민족적 및 계급적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발전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돌리였으며 이 과정에 일련의 견해를 제기하였다.

박은식의 사회발전에 대한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견해이다.

박은식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생존경쟁, 우승열패의 법칙으로 보았다.

생존경쟁, 우승열패란 생존을 위한 활동과정은 생명체의 호상간의 경쟁과정이며 이 과정에 우수한것은 살아남고 멸등한것은 패한다는것이다.

박은식은 이것을 인간사회에서도 작용하는 당연한 법칙으로 인정하였다.

그는 이에 대하여 《…생존경쟁은 진화의 리치요, 우승열패는 당연한 일이라는 말이 있으니 이야말로 정당한 소리이다. 이는 인의도덕과 위반되는것이 아니다. 인의도덕도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굳세고 용맹한 사람만이 이것을 완전히 소유할수 있는것이니 그 경쟁의 힘에서 어찌 우수한자가 승리하고 멸등한자가 패하지 않겠는가.》(《서우》 창간호 1906년 1호)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생존경쟁, 우승열패론을 사회발전의 법칙으로 보았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는 이러한 리해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된것은 수천년

동안 지속된 봉건적영향으로 하여 멸등해졌기때문이며 따라서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사회의 근대화를 실현하여 나라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생존경쟁, 우승열패의 법칙을 사회발전의 법칙으로 본 박은식의 견해는 민족의 힘을 키우자는데 목적을 둔것만큼 당시로서는 사람들의 민족적각성을 높이고 그들을 계몽시키는데 일정한 의의가 있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사회발전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보지 못한 근본적인 제한성을 내포하고있다.

사회적운동은 자연의 운동과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물론 사회적운동이 물질적운동이라는 점에서는 자연의 운동과 공통성을 가진다. 그러나 자연의 운동은 물질적존재들의 맹목적인 호상작용인것만큼 여기에는 운동을 주동적으로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 주체가 없다. 이와 달리 사회적운동은 사람이 목적의식적으로 벌리는 활동으로서 사람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한다. 그러므로 사회적운동은 주체의 운동으로 되며 이로 하여 자연의 운동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박은식은 사회적운동의 이러한 고유한 합법칙성을 보지 못하고 동물계에서 작용하는 생물학적법칙을 그대로 사회적운동에 적용하였다.

박은식의 사회발전에 대한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사회발전의 요인에 대한 견해이다.

사회발전의 요인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운동의 원인과 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사회력사관확립의 기초적인

문제로 된다.

사회발전의 요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사회발전을 위한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세울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사회발전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사회발전의 요인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철학적론쟁점으로 되어왔다.

그러나 지난 시기에는 사회발전의 요인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제기되지 못하였다. 고대나 중세기에 반동적인 통치계급은 저들의 지배적지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신비적존재를 인정하고 그에 의하여 사회발전이 좌우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나라의 봉건통치배들도 성리학적 관념론에 기초하여 사회의 발전이 《천》이나 《천》의 의지를 체현한 왕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립하여 사회의 진보적계층은 당시 사회의 불합리성을 일정하게 간파하고 그 개혁을 주장하면서 이를 이론적으로 근거짓기 위하여 사회발전의 요인을 물질적조건이나 사람자체에서 찾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실학사상가들의 견해를 들수 있다.

이것은 물론 관념론적성격이 농후하고 비과학적인것이였지만 당시로서는 종교신비설에 타격을 준 진보적인 견해였다.

박은식은 사회발전의 요인을 물질적조건이나 사람자체에서 찾는 실학사상가들의 진보적인 견해들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사회발전의 요인문제를 제기하였다.

박은식은 사회발전의 요인을 과학기술의 발전과 민족의 단합으로 보았다. 특히 그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사회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그는 당시의 현실을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간의 생존경쟁의 시대로 특징지으면서 이 생존경쟁에서 우리 민족이 생존하려면 국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국력을 강화하자면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에 대하여 《옛날 아득한 시기 자연상태에서는 짐승들이 발톱과 어금리와 뿔과 같은 자체의 천연적인 리용물에 있어서 인류보다 우세한것이 많아 인류를 잡아메치고 짓씹었으나 결국은 인류가 승리하고 금수는 패하였으며 인류는 번식하고 금수가 자취를 감춘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있고 기구를 리용하였기때문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지식을 없게 하고 기구를 없게 하면 인류의 멸망도 이미 오렸을것이다.》(《서우》 창간호 1906년 1호)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사회발전의 요인으로 보았다는것을 보여준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사회발전의 요인으로 본 박은식의 견해는 당시로서는 긍정적인것이였다.

그의 이 견해는 무지와 몽매속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을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봉건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의 근대화실현을 위하여 떨쳐나서도록 하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였다.

그러나 그의 이 견해는 많은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사회발전의 요인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다.

물론 과학기술지식은 인간의 창조적능력의 기본내용을 이루며 사회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과학기술지식은 인간의 창조적능력의 전부가 아니며 또 그것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규제적작용밑에서만 창조적능력으로 된다.

박은식은 사회발전에서 노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결정적역할을 리해하지 못하고 과학기술지식만을 절대화한 제한성을 발로시켰다.

박은식은 과학기술지식과 함께 민족의 단합을 사회발전의 요인으로 인정하였다.

그는 이에 대하여 《역사적으로나 세계

적으로나 민족성쇠와 국가존망의 리유를 무엇으로 설명할수 있는가.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지식의 유무와 세력의 강약으로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다.》(《서우》 창간호 1906년 1호)고 하였다. 여기에는 과학기술지식과 함께 세력을 사회발전의 요인으로 보는 박은식의 견해가 담겨져있다.

박은식이 사회발전의 요인으로 본 세력에는 민족의 단합이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있다.

그것은 그가 《오늘 우리 사람들이 단합하면 문명하고 우수한 민족으로 될것이지만 흩어지면 야만적이고 열등한 민족으로 될것이며 단합하면 생존할수 있고 흩어지면 멸망에서 구원되기 어려운것이다. 항차 우리 조선사람은 오늘을 당하여 한배에 앉아서 수난을 당한것 같고 한집안에 앉아서 화재를 만난것과 같은 처지이니 어찌 호상 부조하고 호상 격려할 생각이 없겠는가. 생활을 도모하자고 할진대 부득불 단합하지 않으면 안되고 영예를 취하고 치욕을 씻으려 해도 단합하지 않으면 안되고 존귀함을 요구하고 비천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단합하지 않으면 안되고 부귀를 향유하고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해도 단합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이다.》(《서우》 창간호 1906년 1호)라고 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이와 같이 박은식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민족의 단합에서 찾고 이에 기초하여 민족의 단합을 사회발전의 요인으로 규정하였다.

민족의 단합을 사회발전의 요인으로 본 박은식의 견해는 국권회복이 초미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던 당시의 조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단결과 협력은 사람들의 생존방식이다.

사람은 처음부터 단결과 협력으로 자기운명을 개척하여왔다. 단결과 협력을 떠나서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이 있을수

없으며 따라서 운명개척도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다.

이것은 민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의 운명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개척되어나가는 현실적조건에서 민족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하자면 모든 민족성원들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우선시하고 서로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하나의 유기체가 둘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듯이 한민족도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되면 망한다는것이 력사의 진리이다.

특히 당시 일제의 침략으로 망국의 수난을 겪고있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의 단합문제는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였다.

박은식은 민족의 단합문제가 이처럼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던 때에 이 문제를 중요하게 강조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반일항전을 전민족적인 범위로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박은식은 민족단합의 과학적인 방도를 밝히지 못하였다.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자면 전민족을 단결시킬수 있는 사상적기초가 있어야 하며 민족의 단합을 앞장에서 이끌고나가야 할 선진부대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것은 인민대중의 수령, 민족의 수령에 의해서만 마련된다. 이렇게 놓고볼 때 민족의 참다운 단합, 공고한 단합은 탁월한 수령을 모심으로써만 비로소 실현될수 있다.

박은식은 민족단합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민족의 단합을 실현할수 있는 그 어떤 방도도 제기하지 못하였다. 결국 민족단합에 관한 그의 견해는 공상적이고 추상적인것이였다.

사회발전에 대한 박은식의 견해는 많은 제한성을 가지고있지만 애국주의적이며 근대적인 립장이 반영된것으로 하여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의의를 가지였다.